

# 최치원 유지 월영대 고 (崔致遠 遺址 月影臺 考)

朴 東 百  
(昌原大學 博物館長)

## 目 次

- |                     |                  |
|---------------------|------------------|
| I. 序言               | IV. 月影臺를 巡禮한 文章家 |
| II. 崔致遠의 生涯         | V. 結言            |
| III. 月影臺 築造의 背景과 現況 |                  |

## 1. 서언(序言)

마산시(馬山市) 해운동(海雲洞)에 소재한 월영대(月影臺)는 높은 건물(建物)들에 의해 겨울철에는 정오(正午)가 되어야 햇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옛모습을 잃고 초라해졌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보한집(補閑集)》, 《역옹패설(櫟翁稗說)》, 《동문선(東文選)》, 《읍지(邑誌)》 등 많은 기록(記錄)을 상고해 보면 그 경관(景觀)이 아름답고 고려(高麗)·조선조(朝鮮朝)에 이르는 천여년(千余年)동안 많은 선비, 시(詩), 문학(文學)의 대가(大家)들이 최고운(崔孤雲)의 학덕(學德)을 흠모(欽慕)하여 끊임없이 찾아준 아름다운 바닷가의 대(臺)였던 것이다.

고운(孤雲)은 어릴적 부터 총민(聰敏)하고 학문(學文)을 좋아하여 18세때 당(唐)나라에서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할 정도였으니 그의 학문적 깊이를 짐작케 한다. 당나라 회종(僖宗), 건부(乾符) 2년에 황소(黃巢)의 난(亂)이 일어나자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겸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으로 토적(討賊)에 나선 고병(高駢) 휘하에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서기(書記)의 대임을 담당하였다. 이때 《격황소서(檄黃巢書)》의 글을 보면,

「...불유천하지인(不唯天下之人) 개사현륙(皆思顯戮) 역역지중지귀(抑亦地中之鬼) 기의 음주(己議陰誅)…」<sup>1)</sup>

위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그의 문장력(文章力)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 한편의 글로써 문명(文名)을 천하(天下)에 떨쳤을 뿐 아니라 또한 시(詩)에 있어서도 당(唐)나라 명사(名士)들과 겨루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전한다. 중국(中國)에서 명성을 떨친 고운(孤雲)은 28세의 한창나이에 자국(自國)에서 자기의 포부를 펴보려고 귀국(歸

1) 桂苑筆耕集 卷之十一檄黃巢書

國)하였으나 신라(新羅)는 말세(末世)의 인심(人心)인지라 주위로부터 의심과 시기(猜忌)가 많아 용납되지 못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직을 그만두고 자청하여 외직(外職)으로 전전하다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슬퍼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랑생활의 마지막 귀착지를 마산(馬山)인 당시 합포(合浦)의 「별서(別墅)」<sup>2)</sup>로 정(定)하고 경관이 좋은 곳에 대(臺)를 축조하고 이곳을 소유처(逍遊處)로 삼았던 곳이 월영대(月影臺)였던 것이다.<sup>3)</sup> 그러나 고운(孤雲)에게 닥친 운명은 풍월(風月)을 읊기에 좋은 합포(合浦)의 월영대(月影臺)마저 떠나야 했으니 그의 말로(末路)가 험난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리하여 그는 가족(家族)을 데리고 합천(陝川) 가야산하(伽耶山下) 해인사(海印寺)로 망명했다가 하루는 신발을 냇가에 벗어놓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인로(李仁老) 파한집권중(破閑集卷中) : 연관리어림간개상빈야사승이기일천명희(然冠履於林間蓋上賓也寺僧以其日薦冥禧) 고운(孤雲)은 《곡고대방(曲故大方)》 「문묘배형록(文廟配享錄)」에 의하면 문묘(文廟)에 배형(配享)된 문인(文人) 군자(君子)다. 그러나 그의 묘소(墓所)가 없기에 후대(後代) 문사(文士)들이 그를 추앙하고 학덕(學德)을 흠모(欽慕)하여 그를 배례(拜禮)하고자 하나 국가적(國家的) 차원에서 사당(祠堂)이 없으니 그가 가장 오랫동안 머문 합포(合浦)의 월영대(月影臺)를 찾은 듯하다.

최고운(崔孤雲)과 같은 학자(學者)를 논(論)하기엔 너무도 줄필(拙筆)인 자신(自身)을 스스로 질책(叱責)하면서도 고운선생(孤雲先生)이 축조한 대(臺)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 최치원(崔致遠)이 월영대(月影臺)를 축조한 인연과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순례(巡禮)한 월영대(月影臺)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을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최치원(崔致遠)의 생애(生涯)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46 열전(列傳) 6 최치원조(崔致遠條)에 최치원(崔致遠)의 자(字)는 고운(孤雲) 혹은(或)은 해운(海運)이라 하며 왕경(王京) 사양부인(沙梁部人)이나 사전(史傳)이 인멸되어 그 세계(世系)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는 신라(新羅) 헌안왕(憲安王) 원년(元年)(857년 정축(丁丑))에 최씨(崔氏)의 세거지(世居地)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에서 견일(肩逸)의 아들로 태어났다.<sup>4)</sup> 그가 태어날 당시의 신라사회(新羅社會)는 왕권쇠퇴기(王權衰退期)로 왕위(王位)는 몹시 불안정(不安定)하여 이 시기의 임금 20명중 대부분이 비명(非命)으로 죽었다. 왕위쟁탈(王位爭奪)을 중심으로 한 음모, 반역, 골육상잔의 난리는 제 36대 혜공왕(惠恭王)때부터 제 49대 헌강왕(憲康王)까지 계속 되다가 진성여왕(眞聖女王)때에 와서는 전국적(全國的) 동란(動亂)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왕위쟁탈(王位爭奪)의 내분(內紛)은 귀족사회(貴族社會)에 국한된 싸움이었기에 전체적으로 비교적 태평세월이 계속되었다. 정강왕(定康王)의 뒤를 이은 진성여왕(眞聖女王)때 중앙(中央)의 혼란한 정치(政治)의 난맥상은 지방(地方)에까지 미쳤다. 그 결과 국경지방의 백성들이 중국·일본 등지로 몰래 도망하는 자가 많아졌고 또 일부는 해상(海商)으로 서남해(西南海)에 활약하며 때로는 해적(海賊)이 되는 무리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부패에 따라 지방호족세력(地方豪族勢力)은 다시 대두되

2)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原都護府 遺蹟條

3) 三國史記 卷46 列傳 第6 崔致遠條

「東歸故國 皆遭亂世 屯壇蹇連 動輒得咎 自傷不偶 無復仕進意 逍遙自 山林之下 江海之濱 營臺樹植松竹 枕籍書史 嘯詠風月」

4) 崔英成《註解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87.p.1

어 마지막 약 50년간은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가 전개(展開)되었다.

이와같은 시기(時期)에 고운(孤雲)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상선(商船)을 타고 입당(入唐)하여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그의 아버지의 훈계(訓戒)가 후세(後世)에까지 전(傳)해지고 있는데 「10년 안에 등과(登科)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부지런히 힘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다.(계원필경집서(桂苑筆耕集序): 망부성지일십년부제진사즉물위오아(亡父誠之日十年不第進士則勿謂吾兒)) 그는 그후 6년 뒤 18세(874)때 빈공과(賓貢科)에 금방(金榜)(장원,壯元)하여 20세(876)에 선주표수현위(宣州漂水縣尉)가 되어 비로소 벼슬길에 올랐다.

21세(877)에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에 응시(應試)하고자 현위(縣尉)의 직(職)을 그만두고 입산은거(入山隱居)하여 학문(學文)에 전념코자 하였으나 외국(外國)에서 의식주(衣食住)문제가 어려워 다시 출사(出仕)할 수 밖에 없었다.<sup>5)</sup> 황소(黃巢)의 난(875~884)이 일어난 지 5년후에 고병(高駢)<sup>6)</sup>의 휘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서기(書記)의 대임(大任)을 맡게되니 문장(文章)으로 대공(大功)을 세워 그 해 도통순관(都統巡官) 승무랑(承務郎) 시어사(侍御史) 내공봉(內供奉)이 되고 자금어대(紫金魚袋)를<sup>7)</sup> 하사(下賜)받았다. 최치원(崔致遠)이 문명(文名)을 날리게 된 것은 「격황소서(檄黃巢書)」로 서문(序文)에서 밝힌 바 있지만 이 한편의 글은 반적괴(叛賊魁) 황소(黃巢)가 놀랐고 적도(賊徒)들이 싸움의 용기를 잃었다고 하니 그의 문장력(文章力)을 짐작케 한다.

그는 시(詩)에 있어서도 남달리 뛰어나 당(唐)나라에서 명성을 날렸다. 그가 당(唐)에서 귀국(歸國)할 때 친교가 두터운 고운(孤雲)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지은 시(詩)가 오늘에 전하고 있다.

「아문해상삼금오(我聞海上三金鰲) 금오두재산고고(金鰲頭載山高高) 산지상여(山之上與) 주궁구궐황금전(珠宮具闕黃金殿) 산지하여(山之下與) 천리만리지홍도(千里萬里之洪濤) 방변일점계림벽(傍邊一點鷄林碧) 오산잉수생기특(鰲山孕秀生奇特) 십이승선도해래(十二承船渡海來) 문장감동중화국(文章感動中華國) 십팔횡행전사원(十八橫行戰詞苑) 일전사과금문책(一箭射破金門策)」<sup>8)</sup>

이 고운(孤雲)의 글귀에서 12세에 입당(入唐)하여 문장(文章)으로 중원을 감동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통일신라(統一新羅) 말기(末期)에 와서 한문학(漢文學)은 당(唐)나라를 겨룰 정도였고 최치원(崔致遠)에 이르러 사육병려체(四六駢麗體)가 갖추어져 우리 나라 한문학이 비로소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조(朝鮮朝) 성종(成宗)때 성현(成俔)은 우리 나라 문장(文章)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평(評)했다.

「아국문장(我國文章) 시발휘어최치원(始發揮於崔致遠) 치원입당등제문명장진특(致遠入唐登第文名丈振特) 지금배향문묘(至今配享文廟)」<sup>9)</sup>

5) 崔英成, 前掲書

6) 淮南節度使 兼 諸道行營 兵馬都統

7) 당나라때 관리의 허리에 착용하던 장신구로 봉어모양으로 만든 붉은 금빛의 주머니로 3품이상이나 특사를 받은 사람만이 착용했으며 그 속에 성명이 적힌 표신을 넣었는데 신라에서는 당에서 어대(魚袋)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품계가 3품이상인 자금어대(紫金魚袋), 5품이상인 비은어대(緋銀魚袋)

8) 金文策: 科學를 일컫는 말

9) 成俔 慵齋叢話 卷之一

용제총화(慵齋叢話)는 성현(成俔)의 수필집이나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수필문학 중의 백미적(白眉的) 존재로 인정되기에 이를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 문장(文章)의 발휘(發揮)가 최치원(崔致遠)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 조선조(朝鮮朝) 효종(孝宗) 때 홍만중(洪萬宗)은

「아국지통중국(我國之通中國) 원자단군기자이문헌멸여(遠自檀君箕子而文獻蔑如) 수당 이래(隨唐以來) 고수재간책(攷雖在簡冊) 율개적관부족(率皆寂寞不足) 하승이지간당(下乘而至干唐) 시어사최치원(侍御史崔致遠) 문체대비(文體大備) 수동방문학지조(遂東方文學之祖)」<sup>10)</sup>

라 하여 최치원(崔致遠)은 문체(文體)가 고루 갖추어져 있어 이 땅의 문학(文學)의 조종(祖宗)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

최치원(崔致遠)은 많은 저술(著述)을 남겼는데 《신당서(新唐書)》예문지(藝文志)에 사륙집(四六集) 1권(卷)과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卷)이 있다고 하였으며 《계원필경(桂苑筆耕)》의 자서(自序)에 잡시부(雜詩賦) 및 표주집(表奏集)이 28권(卷)이라 하였다. 또 《제왕연대력(帝王年代曆)》이 있어 《삼국사기(三國史記)》찬술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우유문집삼십권(又有文集三十卷)」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하는 것으로는 《계원필경(桂苑筆耕)》만이 완전하게 전하고 그의 약간의 시문(詩文)은 《동문선(東文選)》 등에 산견(散見)되며 금석문(金石文)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산비명(四山碑銘)》을 찾아 볼 수 있다.

당(唐)나라에서 활약하던 최치원(崔致遠)은 28세(884)때 귀국(歸國)의 뜻을 희종(僖宗)에게 알리자 희종(僖宗)은 그를 당(唐)의 사신(使臣)으로 삼아 예방(禮訪)의 형식으로 신라(新羅)에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리하여 이듬해 3월 당(唐)의 문사(文士)들로부터 전송을 받으며 귀국(歸國)하게 되니 당시 신라(新羅) 헌강왕(憲康王)은 최치원(崔致遠)에게 시독(侍讀) 겸(兼) 한림학사(翰林學士) 수병부시랑(守兵部侍郎) 지서서감(知瑞書監)의 직(職)을 주었다.

최치원(崔致遠)은 문장(文章)에 깊이가 있고 그의 인생관(人生觀)은 폐쇄사회의 신라 관료(新羅官僚)들과는 달리 「도하원인(道下遠人) 인무이국(人無異國)」이라 하였으니 그의 넓은 도량과 학문(學文)의 세계와 인간(人間)의 삶에 있어 포용력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언행(言行)이 일치하여 한번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성품(性品)임을 알 수 있다.

「승평막도청산호(僧乎莫道靑山好) 산호향사갱출산(山好向事更出山) 시간타일오종적일 입청산갱불환(試看他日吾踪蹟一入靑山更不還)」<sup>11)</sup>이라 하더니

과연 만년에 해인사(海印寺) 입구(入口) 홍류동(紅流洞) 룡산정(籠山亭) 옆에 신발을 벗어 놓고 입산(入山)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후세인(後世人)들은 고운(孤雲)은 가야산(伽耶山)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10) 洪萬宗의 小華詩評: 그는 孝宗때의 학자로 號는 玄默子로 널리 학문에 통하고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특히 문학 평론집이라 할 수 있는 旬五志, 歷代總目, 詩話叢林, 蓂葉志譜 등이 있다.

11) 歷史의 故郷 下卷 3章, 思想의 故郷 日요신문사 1978.

### Ⅲ. 월영대(月影臺) 축조(築造)의 배경(背景)과 현황(現況)

현재(現在) 월영대(月影臺)는 마산시(馬山市) 해운동(海雲洞)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이곳을 속칭 댕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마산(馬山)에서 국도(國道)로 진주(晉州), 충무(忠武), 고성(固城)으로 가는 갈림길인 삼거리의 도로변에 위치하였고 87년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로가 확장될 때 유적지관계(遺蹟址關係)로 월영대(月影臺) 반대편의 건물이 철거되고 월영대(月影臺)는 그대로 보존(保存)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변이 이미 밀집 주택지로 변하였고 1990년 즉 금년(今年) 월영대(月影臺) 동(東)과 남(南)으로 불과 3m거리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대형(大形)건물이 세워져 경관이 좋았던 월영대(月影臺)는 달빛조차 보기 어렵게 되었다.(사진2참조)

축대(築臺) 높이 1.2m의 장방형(長方形)으로 총면적 132.23㎡이다.(도면1참조)

대내(臺內)에 1930년경에 세운 해운(海運) 최치원 선생(崔致遠 先生) 추모비(追慕碑)와 비각(碑閣)이 팔자(八字)지붕으로 세워져 있고 동북(東北)에 입석(立石)이 있는데 이 입석(立石)에 월영대(月影臺)란 3자는 해서체(楷書體)로 자경(字徑) 23cm로 판독(判讀)이 가능(可能)하나 양측과 후면(後面)에 잔글씨가 있었음은 입증(立證)되나 판독이 불가능하다.(사진4참조) 입석(立石)의 높이 210cm, 폭 35cm의 화강암으로 되어있으나 석질(石質)은 양호한 편이 못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유석각박락(有石刻剝落)」이란 말과 같이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미 세자(細字)는 판독이 불가능했다고 하니 이 비(碑)를 각자(刻字)한 것은 그 연대(年代)가 신라말기(新羅末期)로 추정(推定)할 수 있으며 이 글을 최치원(崔致遠)의 친필 여부(親筆 如否)를 놓고 논란(論難)이 있었으나 현존(現存)하는 고운(孤雲)의 글로 사산비명(四山碑銘)을 제(除)하면 진해시(鎭海市) 용원동(龍院洞)(행정구역 개편전 김해 金海)에 소재한 청룡대(靑龍臺)와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 입구(入口) 계곡의 암벽(岩壁)에 새겨진 글씨 등이 있다. 용원(龍院)의 청룡대(靑龍臺)는 치원락(致遠樂)이란 낙관이 있어 고운(孤雲)의 친필(親筆)을 확인할 수 있기에 그곳에 「대(臺)」자(字)와 이 곳 월영대(月影臺)의 「대(臺)」자(字)를 비교해 보았다.<sup>12)13)</sup> 물론(勿論) 용원(龍院)의 것은 초서(草書)이고 월영대(月影臺)는 해서(楷書)이나 많은 서예가(書藝家)들은 그 글자의 획이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축대(築臺) 동편(東便) 중앙(中央)에 문창공최선생유허비(文昌公崔先生遺虛碑)가 있다. 이 비(碑)의 뒷면에

「원지영호백세천인대단증수모혹인유(院址永護百世千躡臺壇增修毋或躡蹂)」라

하였고 축대(築臺) 담장으로 돌린 입석(立石)에 「승정후신미(崇禎後辛未) 칠월(七月) 일(日) 부사최위중수(府使崔瑋重修)」라고 한 비문(碑文)이 현존(現存)한다. 최위(崔瑋)는 1690년(조선(朝鮮) 숙종(肅宗) 17년)8월에 창원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691년 10월에 부산첨사(釜山僉使)로 전근하게 된다.<sup>14)</sup> 아마도 최위(崔瑋)는 경주(慶州) 최씨(崔氏)로 부임하자 이 축대(築臺)를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에 마산(馬山)의 명물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옛날의 월영대(月影臺)를 짐작하게 한다.<sup>15)</sup>

12)

13) 사진4참조

14)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原都護府, 人物篇

월영대(月影臺)의 위치(位置)에 관하여 살펴보면

「월영대(月影臺) 재회원현서해변(在會原縣西海邊) 최치원소유처(崔致遠所遊處) 유석각  
박락(有石刻剝落)」<sup>16)</sup>

월영대(月影臺)는 회원현(會原縣) 서해변에 있다고 했는데 회원(會原)이란 지명(地名)은 마산(馬山)이 의창(義昌)과 합쳐지기 전 즉 조선조(朝鮮朝) 3대(代) 태종(太宗) 8년(年)이전에 마산(馬山)을 회원(會原)이라 하였다. 이미 이 때에 월영대에 새겨진 잔글씨는 박락되고 말았다. 여기에 지적한 서해변은 오늘의 월영대와 일치한다.

이 기록(記錄)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한 것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세종(世宗) 14년에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완성되고 1486년(성종(成宗)18)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만들어지고 1530년 중종 25년에 신증(新增)을 부쳐 간행된 책(冊)이나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학자(學者)인 이첨(李詹)(1345~1405)은 1365년(공민왕(恭愍王)14)에 감시(監試)에 합격(合格)하여 1398년(태조(太祖)7) 이조전서(吏曹典書), 1402년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使)를 역임하고 문장(文章)에 능한 분으로 경상도(慶尙道) 일대의 여러 사정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 많다. 그 중에 월영대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두척산(斗尺山)<sup>17)</sup> 재회원현(在會原縣) 봉상유고운대재월영대북오리(峯上有孤雲臺在月影臺北五里) 이첨시위피두척산대색횡운표동남염창명무우자혼호이석고운선결구원림초소요월영대기흥추천향(李詹詩蔚彼斗尺山黛色橫雲表東南厭滄溟霧雨自昏曉伊昔孤雲仙結構遠林杪逍遙月影臺氣興秋天香)」<sup>18)</sup>

라 하였다. 이 글을 요약하면 두척산(斗尺山)은 회원현(會原縣)에 있는데 봉상(峯上)에 고운대(孤雲臺)가 있고 월영대북(月影台北) 오리(五里) 지점에 있다.(읍지도(邑誌圖) 참조)

이와 같은 기록을 상고할 때 월영대의 위치는 오늘과 동일한데 그 각자(刻字)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 월영대의 각자(刻字)에 관해서 이첨(李詹)은 언급(言及)이 없고 신증동국여지승람유적조(新增東國輿地勝覽遺蹟條)에는 박락(剝落)이라 하였는데 비(碑)를 탁본해 보면 월영대 좌·우 측면에 새겨진 각자(刻字)는 판독(判讀)이 불가하고(사진4참조) 오직 월영대만은 대자(大字)로 각자(刻字)했기에 판독이 용이하다.

여기에서 최고운(崔孤雲)이 마산(馬山)의 월영대(月影臺)로 오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운(孤雲)은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명승지(名勝地)를 찾아 유랑한 것 같다.

「무복임진의(無復任進意) 소요자방(逍遙自放) 산림지하(山林之下) 강해지빈(江海之濱) 영대(營臺) 사식송죽(樹植松竹) 침적사서(枕籍史書) 소영풍월(嘯咏風月) 약경주남산(若

15) 사진참조

16) 註3)의 前掲書

17) 현재 馬山의 舞鶴山으로 옛 기록에는 斗尺山으로 되어있다.

18)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原都護府 山川條

慶州南山) 강주영산(剛州永山) 합천청양사(陝川淸涼寺) 지리산쌍계사(智異山雙溪寺) 합포현별서(合浦縣別墅)……」<sup>19)</sup>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산림(山林)속에나 강해(江海)가를 소요하면서 대사(臺榭)를 만들고 송죽(松竹)을 심어놓고 사서(史書)공부에 힘쓰는 한편 풍월(風月)을 읊는 것으로 소일(消日)했다는 것이고 그 소요처(逍遙處)로는 경주의 남산(南山), 강주(剛州)의 영산(永山), 합천(陝川)의 청양사(淸涼寺), 지리산(智異山)의 쌍계사(雙溪寺) 그리고 합포별서(合浦別墅)와 같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관직(官職)에서 물러났으니 처음은 경주(慶州), 그리고 경주(慶州)에서 가까운 영주에 머물다가 경주로부터 먼 곳 지리산(智異山)의 청양사(淸涼寺)로 옮겼다가 쌍계사(雙溪寺) 그리고 합포(合浦)로 이주(移住)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소요처는 주로 산림(山林)지대였는데 마지막으로 합포(合浦)로 옮겨오는 것은 만년에 바닷가에 살기를 원했다고 추측된다.

합포(合浦)(마산,馬山)에 대해 그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을 잠시 살펴하기로 하겠다.

마산(馬山)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의 하나인 골포국(骨浦國)이다.<sup>20)</sup> 마산만(馬山灣)이 깊숙히 들어와 내륙만을 형성하고 그 입구(入口)는 거제(巨濟)섬이 가로놓여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잔잔한 호수와 같다. 그리고 봉암(鳳岩)협곡을 들어서면 창원(昌原)에 다시 내륙만이 있어 이 곳을 출입할 때 협곡에서 막으면 어떠한 배도 저지할 수 있는 요새지(要塞地)이다.

골포시대(骨浦時代)는 이 곳이 생활근거지가 되었기에 당시의 패총(貝塚), 고분(古墳) 등이 현존(現存)한다. 그리고 마산(馬山) 서(西)쪽에 두척산(斗尺山)(현,現:무학산,舞鶴山) 북(北)쪽에 천주산(天主山), 봉림산(鳳林山), 동쪽에 불모산(佛母山), 남(南)쪽에 장복산(長福山) 등으로 이어진 분지(盆地)로 월영대(月影臺)는 그 입구(入口) 사장(沙場)으로 조선말기(朝鮮末期)까지만 해도 해송(海松)이 우거진 해변가 모래사장으로 경관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 경관은 월영대를 찾아 시를 읊은 이가 많아 후장(後章)에서 이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라시대(新羅時代) 최치원(崔致遠)이 축조했다는 기록(記錄)과 함께 대(臺)가 현존(現存)하는 곳은 월영대(月影臺)뿐이다. 그러나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 경내 학토대(學土臺)가 월영대(月影臺)와 축조형식(築條形式)이 비슷한 점에 관심을 갖게 한다. 마산(馬山)의 월영대(月影臺)는 최씨(崔氏) 문중(門中)에서 고운선생(孤雲先生) 추모비(追慕碑)를 월영대(月影臺) 경내에 건립하면서 2단(段)의 축을 삭평하였기에 그 원형을 어느 정도 잃고 있다.

최고운(崔孤雲)은 이 곳에서 해인사(海印寺)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소요처의 순서가 경주(慶州)에서 영주(榮州), 가야산(伽耶山), 지리산(智異山), 합포(合浦)(마산,馬山) 그리고 해인사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포(合浦)에 오래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것은 이첨(李詹)의 시(詩)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숲 끝에 집짓고 월영대(月影臺)를 거닐었네」 하는 대목이다. 경주(慶州)를 벗어나서는 주로 사찰(寺刹)에 머물렀으나 이 곳 마산(馬山)에서는 집을 짓고 살았기에 가족(家族)과 함께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해인사로 떠날 때 「여모형(與母

19) 三國史記 卷46 列傳 第6 崔致遠條

20)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第2 奈解尼師今14年條

兄)」<sup>21)</sup> 이라 하였으니 가족(家族)을 데리고 해인사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만년의 정착지를 합포(合浦)에 마음을 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이 곳에서 여생을 마치지 못하고 해인사로 옮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야산(伽耶山), 해인사(海印寺) 입구(入口) 홍류동(紅流洞) 절벽에 다음과 시구(詩句)가 현존(現存)한다.

「광분침석후중만(狂噴壘石吼重巒) 언어난분咫尺間(人語難分咫尺間) 상공시비성도이(常恐是非聲到耳) 고교유수진용산(故教流水盡龍山)」<sup>22)</sup>

이 시(詩)는 낙관이 없기에 누구의 글인지 알지 못하나 후세(後世) 학자(學者)들은 최고운(崔孤雲)이 아니면 이와 같은 시(詩)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있다.<sup>23)</sup> 이번 조사에서는 진해시(鎭海市) 용원동(龍院洞) 청룡대(靑龍臺)의 글씨와 비교하니 최고운(崔孤雲)의 글씨임에 분명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중첩된 산을 호령하며 미친듯 쏟아지는 물소리, 사람의 소리는 지척간에도 분간하기 어렵고 세상(世上)이 시비(是非)의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온 산을 덮었네……」 하였으니 신라말기(新羅末期)의 세상(世上)이 혼탁하니 속세(俗世)를 벗어나고자 하는 일면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라(新羅) 멸망을 예언한 사실이다.

「치원지비상인(致遠知非常人) 필수명개국(必受命開國) 인치서문(因致書門) 유학림황엽(有鶴林黃葉) 곡령청송(鶴嶺靑松)」<sup>24)</sup>

위의 글은 후세(後世)에도 사실여부를 놓고 다소 논란을 야기시킨 바도 있지만 우리는 이 기록(記錄)을 불신(不信)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결국 이와 같이 신라(新羅)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민심(民心)의 방향은 고려(高麗)로 돌아갔다. 고려(高麗) 왕건(王建)이 경순왕(敬順王)때 경주(慶州)로 왔을 시

「석견훤지래야(昔甄萱之來也) 여봉표호(如逢豹虎) 금왕공지지(今王公之至) 여봉부모(如逢父母)」<sup>25)</sup>

운운(云云)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신라인(新羅人)들은 민심(民心)이 왕건(王建)에게 쏠리고 있음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문장가(大文章家)요 학자(學者)인 고운(孤雲)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고운(孤雲)의 글귀가 신라사회(新羅社會)에 전파되자 신라(新羅)지배층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음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고운(孤雲)에게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해인사로 일종의 망명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언을 어디에서 했을까하는 문제이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합

21) 註19)의 前揭書

22) 海印寺, 韓國의 寺刹 7, 韓國佛敎研究院 1988. p.16

23) 李仁老의 破閑集卷中: 幾十里丹崖碧嶺松檜蒼蒼風水相激自然有金石之聲 公嘗題一絕醉墨超逸 過者 皆指之曰崔公題詩石

24) 註22)의 前揭書

25) 註23)의 上揭書



포(合浦)에 정착했다가 해인사로 이주하는 것을 볼 때 이 곳에서 그와 같은 문구(文句)의 글을 지어 왕건(王建)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혹자는 상서장(上書壯)에서 했을 것이라 하고 있으나 고운(孤雲)의 소요행방(逍遙行方)을 추적해 볼 때 상서장(上書壯)에서는 시무(時務)10조(條)를 올리고 경주(慶州)에서 관직(官職)에 있을 때 거주지(居住地)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고운(孤雲)이 해인사(海印寺)로 망명한 후에도 이 곳 사람들은 월영대(月影臺)를 보존(保存)하고 위대한 학자(學者)의 소요처(逍遙處)이므로 이 곳을 중요시(重要視) 했음은 다음과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홍치임자추창원부노등주서래위아왈부구시회원의창양현야석지세조동정일본어시언치행성신라최치원축대유상기지유존(弘治壬子秋昌原父老等走書來謂我曰府舊是檜原義昌兩縣也昔之世祖東征日本於是焉置行省新羅崔致遠築臺遊賞基址猶存)」<sup>26)</sup>

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이곳 부노(父老)들이 정동행성(征東行省)과 최치원(崔致遠)이 축조한 월영대(月影臺)가 아직 남아있는 고장임을 자랑하고 있다. 이 글은 홍치(弘治) 임자(壬子)년으로 1492년(성종,成宗23)이니 고운(孤雲)이 떠나고 6백년 후의 일이다. 이와 같은 월영대(月影臺)는 이 고장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이요 또 고운(孤雲)이 돌아가고 고려(高麗)·조선(朝鮮) 천여년간(千余年間) 수많은 선비들이 고운(孤雲)의 학덕(學德)을 흠모하며 찾아왔으니 이 곳 월영대는 우리 나라 선비의 순례지(巡禮地)가 되었다.

#### IV. 월영대(月影臺)를 순례(巡禮)한 문장가(文章家)

앞에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고운(孤雲)은 12세에 입당(入唐), 28세에 귀국(歸國)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다. 서기(西紀) 884년에 귀국하여 진성왕(眞聖王)8년(894)에 시무(時務)10조(條)를 왕(王)에게 올렸다. 이때 나이 38세, 효공왕(孝恭王) 2년(898) 모종의 사건으로 아손(阿飡)에서 면직되는데 이 때 나이가 42세로 40십대(代) 초반이다. 이때부터 소요처(逍遙處)를 옮겨가면서 풍월(風月)을 읊고 사서(史書)를 공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참고로 사산비명(四山碑銘)의 건립(建立)을 보면 경북(慶北) 월성군(月城郡) 외동면(外東面)의 대승복사비명(大崇福寺碑銘)이 헌강왕(憲康王) 11년(885) 당(唐)에서 돌아와 건립하게 되었고 경남(慶南) 하동(河東)의 쌍계사(雙溪寺) 진감선사비명(眞鑑禪師碑銘)은 정강왕(定康王) 2년(887)이고 충남(忠南) 보령(保寧)의 랑혜화상백월보탑비명(朗慧和尚白月葆塔碑銘)은 진성왕(眞聖王)4년(890)으로 추정되고 경북(慶北) 문경(聞慶) 지증대사적조탑비명(智證大師寂照塔碑銘)은 경명왕(景明王)8년(924)에 건립되나 고운(孤雲)이 비문(碑文)을 찬(撰)한 것은 진성왕(眞聖王) 7년(893)<sup>27)</sup>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대(年代)들을 볼 때 그가 아손(阿飡)에서 물러나기 전(前)에 사산비명(四山碑銘)은 완성(完成)하게 되고 900년대(年代)부터 소요처를 옮겨가면서 풍월(風月)을 읊게되니 합포(合浦) 월영대(月影臺)로 오게 된 확실한 연대는 알지 못하나 그 만년으로 볼 때 910년대, 그 나이 50세에 가까워서 이곳에 머물다가 가야산(伽耶山) 해인사(海印寺)로

26)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原都護府 樓亭條

27) 崔英成《註解 四山碑銘》亞細亞文化社. 1987. pp.10~20

옮겨갔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돌아가신 후 그 학문을 흠모한 후학들이 이 곳 월영대를 찾게되는데 고려(高麗) 12 시인 중(詩人中) 한 사람인 정지상(鄭知常)이 월영대(月影臺)를 순례하고 남긴 시(詩)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벽파호묘석취의(碧波浩渺石崔嵬) 중유봉래학사대(中有蓬萊學士臺)  
 송노단변황초합(松老壇邊荒草合) 운저천말편범래(雲低天末片帆來)  
 백년풍아신시구(百年風雅新詩句) 만리강산일주배(萬里江山一酒盃)  
 동수학림인불견(東首鶴林人不見) 월화공조해문회(月華空照海門回)<sup>28)</sup>

푸른물결 오묘한데 돌이 우뚝하다고 하였다. 이 돌은 후일(後日) 입석(立石)으로 불리어지면 마산(馬山)의 지리(地理)를 설명할 때 월영대(月影臺)의 입석(立石) 몇 리(里) 지점에 무엇이 있다는……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읍지(邑誌) 도(圖) 참조)

솔 늙은 제대(祭臺)에는 풀이 우거졌다고 하였는데 축대(築臺)에는 거목(巨木)이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함천(陝川) 해인사(海印寺) 팔만대장경판고(八萬大藏經板庫) 서편(西便)에 천년고목(千年古木)의 잣나무가 있는 것이 축대(築臺)로 되어있다. 이 곳이 학사대(學士臺)로 최치원(崔致遠)이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며 전설상으로 이 잣나무는 고운(孤雲)의 지팡이라 한다. 이와 같이 월영대(月影臺)도 학사대(學士臺)와 흡사한 점은 1920년대의 월영대 사진을 보면 축조방법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사진 1 참조)

정지상(鄭知常)은 고려(高麗) 인종(仁宗)때의 문신(文臣)으로 1112년 예종7년에 급제(及第)하여 정언사간(正言司諫)을 지내고 기거주(起居注)에 이르렀다. 이자겸(李資謙)을 축출한 탁후경(拓後京)이 그 공(功)을 믿고 발호하자 상소(上疏)하여 그 일당을 유배(流配)시킨 인물(人物)로 고려(高麗) 12 시인 중(詩人中)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가 월영대(月影臺)를 찾은 시기(時期)를 밝혀놓고 있지 않기에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급제년(及第年)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00년이 지난 후라 여겨진다.

김극기(金克己)의 시(詩)에

「기암침해용취의(奇岩枕海聳崔嵬) 공설화선구영대(共說化仙舊詠臺)  
 월영기휴환복만(月影幾虧還復滿) 운종장왕미회래(雲從長往未會來)」<sup>29)</sup>

기이한 바위가 바닷가에 우뚝한데 모두들 유선(儒仙)<sup>30)</sup>이 읊조리던 축대라 말한다고 하였는데 월영대가 현재(現在)는 내륙(內陸) 깊숙한 곳에 있지만 위의 시구(詩句) 내용(內容)으로 볼 때 월영대는 바로 바닷가에 있었고 월영대입석(月影臺立石)은 바다쪽을 향해 있었던 것 같다.<sup>31)</sup>

김극기(金克己)는 고려(高麗) 명종(明宗)때의 학자(學者)로 벼슬보다 시(詩)을 기를 좋아했다. 명종(明宗), 재위(在位)기간이 1170~1197년이니 1190년대로 기준한다면 정지상(鄭知常)보다 80년이 지나 월영대(月影臺)를 순례(巡禮)한 것이 된다. 이로 미루어 볼때 1200년대도 월영대 주변은 바닷가의 아름다운 경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28) 新增東國輿地勝覽 昌原都護府 古蹟條

29) 註27)의 前揭書

30) 致遠은 이름이고 그외 孤雲, 海運, 海天, 儒仙 등은 別號이다

31) 사진참조

다음은 채홍철(蔡洪哲)의 시(詩)에

「문장습기전취의(文章習氣轉崔嵬) 홀억최후일상대(忽憶崔候一上臺)………」 32)

문장의 기세가 점점 우뚝하여지니 문득 최후(崔候)를 생각하고 축대에 오른다고 하였다. 채홍철(蔡洪哲)(1262~1340)은 고려(高麗) 충선(忠宣), 충숙왕(忠肅王)때의 대신으로 1314년 오도순방계정사(五道巡訪計定使)가 되었기에 그 연대를 기준한다면 김극기(金克己)보다 120년 후(後)에 이 곳 월영대를 찾아온 것이다. 이 시구(詩句)에서도 월영대(月影臺)는 옛 모습 그대로 존재(存在)했음을 입증(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안축(安軸)의 시(詩)에

「해상층대경최고(海上層臺景最高) 조파명월기영휴(照波明月幾盈虧)  
불수갱영고운구(不須更詠孤雲句) 금고현촌각일시(今古賢村各一時)」 33)

바다가 축대에 경치가 기이하다. 물결에 비치는 달빛은 몇 번이나 들렀나 라고 하였다.

안축(安軸)(1282~1348)은 고려 후기의 학자로 1324년(충숙왕,忠肅王 11)에 원(元)에 서 급제(及第)한 뒤 귀국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충목왕(忠穆王)때에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승진한 분으로 저서(著書)로는 관동별곡(關東別曲), 한림별곡(翰林別曲)이 유명(有名)하다. 그의 만년에 월영대를 찾았다면 1340년경으로 채홍철(蔡洪哲)보다 30년 후에 월영대를 방문한 것이다. 위의 시구(詩句)에서 월영대를 아름다운 경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산(馬山)이란 지리적(地理的)인 조건이 합포만(合浦灣)은 잔잔한 호수와 같고 그 곳에 비치는 달빛은 이 곳 사람들의 자랑거리이다. 채홍철(蔡洪哲)은 월영대를 중심으로 주변의 경관에 감탄하였고 월영대가 바로 바닷가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의 매혹되고 잡다한 건물이 들어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박원정(朴元亨)의 시(詩)에

「원객유유방고래(遠客悠悠訪古來) 춘심해암야화원(春深海岸野花園)  
대공월영여천재(臺空月影餘千載)………」 34)

먼 객이 유유하게 고적을 찾아오니 봄 늦은 해안에 들꽃이 피었다. 대는 비었는데 월영(月影)은 천년이나 넘었고……운운(云云)하였다.

박원정(朴元亨)(1411년~1469)은 세조(世祖)때의 문신(文臣)으로 1432년(세종,世宗 14) 사마시(司馬試)에 1434년 알성시(謁聖試)에 급제, 세조때에 도승지(都承知)가 되었고 정난공신(靖難功臣)의 호(號)를 받았다. 박원정(朴元亨)이 알성시(謁聖試)에 급제한 시기를 기준한다면 채홍철(蔡洪哲)보다 80년 후의 일이다. 시(詩)의 내용(內容)으로 볼 때 월영대(月影臺)는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보전(保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월영대(月影臺)에 많은 선비가 한번쯤은 오는 즉 순례지(巡禮地)임을 말하고 있다.

32) 註27)의 前揭書

33) 註27)의 前揭書

34) 前揭書

정이오(鄭以棼)의 시(詩)에

「아사최유선석등해상지층대해수하삼망방변수점(我思崔儒仙昔登海上之層臺海水何森茫  
傍邊數點) 청산개유선일거명월재제색야영은(靑山開儒仙一去明月在靑色夜領銀) 조희권객  
독등추의다차간불가무초재(潮回倦客獨登秋意多此間不可無楚才)」<sup>35)</sup>

“내가 최유선(崔儒仙)을 생각하니 옛날 바닷가 층대에 올랐도다. 바닷물은 어이 그렇게 아득하던가. 곁에는 두어 점 청산(靑山)이 펼쳐 있다. 유선(儒仙)은 갔어도 명월(明月)은 남아 맑은 빛이 은빛 조수와 함께 돌아온다. 고난한 객이 홀로 오르니 가을 닳이 많아 이 사이에 초재(楚才)(무재,無才)가 없을 수 없구나.”하였다. 이 시구(詩句)는 주변 경관에 관하여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정이오(鄭以棼)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문신(文臣)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때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태종(太宗)때 대제학(大提學) 찬성사 등을 지냈다. 태종(太宗)의 재위(在位)가 1400~1418년이니 태조말(太祖末)로 볼때 1400년이니 박원정(朴元亭)과 거의 같은 시기다.

조선(朝鮮) 중기(中期)에 오면 월영대를 찾아 시인 남긴 분들이 많은데 그중 명시들만 골라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수록된 것들을 소개하면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의 시(詩)에

노수기암벽□전(老樹奇岩碧□前) 고운유적총성연(孤雲遺蹟摠成烟)  
지금유유고대월(至今猶有高臺月) 유득정신향아전(留得精神向我傳)<sup>36)</sup>

사당 오랜 담장 앞에 늙은 나무 기이한 바위 고운의 유적은 모두가 안개 속에 잠기었네. 오늘날도 높은 대에 달빛은 서려있고 오랜 세월 그 정신 나에게로 전해오네.

이황(李滉)(1501~1570년)은 조선(朝鮮) 중기(中期)의 학자로 호(號)는 퇴계(退溪) 1528년 중종(中宗) 23년에 진사(進士)에 합격(合格), 1533년에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다. 1539년에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 을사사화(乙巳士禍) 이후 벼슬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성리학(性理學)에 몰두 “동방(東方)의 주자(朱子)”란 칭호를 받았다. 그는 1555년(명종10)에 고향으로 돌아와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지어 학문과 사색의 생활을 계속할 때 이 곳을 찾았다면 정이오(鄭以棼)보다 150여년 후(後)의 일이다.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의 시(詩)에

「대백산남지리동(太白山南智異東) 환주승치이대봉(還珠勝致以臺蓬)  
인가이락천년벽(人家蘿落千年碧) 객사문정백일홍(客舍門庭白日紅)  
원장후풍행성도(元將候風行省度) 최선완목고대공(崔善完目古臺空)  
지금유여어초창(只今猶與漁樵唱) 일반평분속취옹(一半平分屬醉翁)」<sup>37)</sup>

35) 前掲書  
36) 前掲書  
37) 前掲書

대백(太白)의 남(南)이오 지리(智異)의 동쪽이다. 환주(還珠)(고려시대,高麗時代 이곳 지명,地名)의 고운 경치 봉대산을 닮았구나. 인간의 울타리는 오래되어 퇴색하고 객사의 뜰안에는 한낮이 밝았구나. 온나라 장수의 고운 기풍형성에 넘쳐있고, 최치원은 달을 보던 옛 누대는 비었구나, 지금 어부의 뱃노래는 반쯤이나 아득히 취한 나에게 들려오네 “하였다. 이 시구(詩句)에서도 월영대(月影臺)와 정동행성지(征東行省址)의 성(城)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정문부(鄭文孚)(?~1624)는 조선(朝鮮) 선조(宣祖)때의 의사(義士), 시호(諡號)는 충의(忠毅), 1588년(선조,宣祖 21)에 생원(生員)이 되었고 계속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였다. 북평사(北評事)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성(鏡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길주(吉州)에서 활약한 분이다. 1618년 9월에 창원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로 부임하여 2년 5개월 동안 재임(在任)한 적이 있어 그때 남긴 시(詩)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정문부(鄭文孚)는 퇴계(退溪)보다 63년 후(後)에 월영대(月影臺)를 찾은 것이 된다. 이외에 월영대(月影臺)를 찾은 선비는 박사해(朴師海)로 그의 시(詩)에

「벽천은포회탄휘(碧天銀浦廻呑輝) 수노대황고적미(樹老臺荒古跡薇) 능곡변천지종도명전박락석생의(陵谷變遷池種稻銘鏹剝落石生衣)……」 38)

위의 시구(詩句)에서 나무는 늙고 대는 거칠어 옛 자취 희미하다 언덕과 골짜기가 변천하여 못에는 벼가 자라고 글을 새긴 돌은 벗겨지고 떨어져 이끼만 푸르다고 하였으니 박사해(朴師海)가 월영대(月影臺)를 찾았을 때는 월영대가 다소 허물어져 가는 인상과 주변 경관은 바다가 충적되어 주변이 전답(田畓)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로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사해(朴師海)의 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등재(登載)된 인물(人物)이며 여지승람(輿地承覽)은 시대순으로 기록되어서 정문부(鄭文孚)와 거의 같은 시대의 인물(人物)로 볼 때 1600년대에 와서 월영대 주변이 전답으로 변화한 것 같다.

손기양(孫起陽)은 1610년(광해군(光海君) 2) 12월에 창원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로 부임하여 1614년 2월까지 재임(在任)한 부사(府使)로 그의 시구(詩句)에는

「화선천고어취외(化仙千古語崔嵬) 인거명유월만대(人去名留月滿臺)……」 39)

라 하였다. 창원부사(昌原府使)가 되었기에 월영대(月影臺)를 찾아 시(詩)를 남기고 있다.

이민구(李敏求)는 조선(朝鮮) 인조(仁祖) 때의 문관(文官) 이조판서(吏曹判書) 수광(睟光)의 아들로 1612년(광해군,光海君4)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병자호란(丙子胡亂)때 화의를 주장하였고 병조참판까지 역임하였으나 강화도 함락으로 영변에 귀양갔으나 귀양이 풀리지 않은 채 죽었다. 그러나 그는 문장으로 이름이 높고 특히 시문에 능하였다. 그의 시(詩)를 살펴보면

「천재고운상차대(千載孤雲上此臺) 독휴명월공배회(獨携明月共徘徊)

38) 前掲書

39) 前掲書

고운벽낙란참길(孤雲碧落鸞驂吉) 명월청천계영래(明月晴天桂影來)  
등임운월상함야(登臨雲月相涵夜) 조고음성기일애(弔古吟聲起一哀)」 40)

월영대에 올라 최고운(崔孤雲)을 생각하며 읊은 시(詩)이다. 이 시구(詩句)에서는 월영대의 아름다운 경관(景觀)은 말이 없고 오직 천년전 고운(孤雲)이 거닐었던 축대(築臺)에 오르니 구름과 달이 서로 옷을 적시는데 옛을 조상하고 시를 읊으니 슬픔이 이는 구나 하였다.

신지제(申之梯)는 1613년(광해군,光海君 5) 8월에 부임하여 1618년 8월 만5년간을 창원부사를 역임한 분으로 그의 시구(詩句)에

「창산제해락취의(蒼山際海落崔嵬) 하유고운구축대(下有孤雲舊築臺)……」 41)

위의 시구(詩句)에서 푸른 산은 절벽되어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아래로 고운(孤雲)의 옛 축대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때만 해도 선비들이 이곳을 찾아 시(詩)를 읊조리기도 한 것 같다.

이와같이 월영대(月影臺)를 찾아 명시(名詩)를 남겨 《여지승람(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등에 등재된 인물(人物)만 무려 13명(名)에 이르고 있으니 그외 얼마나 많은 선비가 이곳을 찾았을까. 분명 이곳은 고운(孤雲)이 가고 천여년(千余年)동안 우리 나라 문장가(文章家)들의 순례지(巡禮地)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V. 결론(結言)

한국(韓國)의 문화재(文化財)란 그 문화재(文化財)가 갖는 현재적(現在的) 가치(價値) 즉 원형(原形)대로의 보존(保存), 희귀성(稀貴性), 역사연구(歷史研究)의 귀중한 자료(資料) 등으로 평가(評價)하고 있지만 이곳 월영대는 경남(慶南)의 비지정 문화재(非指定文化財)로 현대(現代)의 의식(意識)속에서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우리들은 이 월영대(月影臺)를 찾아온 선비들이 선현(先賢)을 흠모(欽慕)하고 그의 학문을 동경하는 마음가지고 또 신라시대(新羅時代)에 만들어진 축대가 다소 그 형태와 주변환경이 변하였다 해도 천여년(千余年) 세월(歲月)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다른 어떤 문화재(文化財)에 비하여 그 값어치가 적다고 평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뜻있는 분들은 이 고장의 전통유적(傳統遺蹟)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월영대(月影臺) 되살리기 운동까지 전개되는 사실을 보고 이 월영대에 논고(論考)를 초(草)하게 된 것이다.

원래 대(臺)란 자연(自然)상태의 대(臺)가 있고 인위적(人爲的)으로 축조한 대(臺)가 있다. 대(臺)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으면 태(台)를 축조하고 집을 짓게되면 누대(樓臺)가 된다. 기록상으로 신라(新羅) 신문왕(神文王)때 부왕(父王)을 동해(東海)에 수장(水葬)하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가장 쉬운 곳을 선택하여 이견대(利見臺)라 하였다고 나타나지만 오늘의 이견대(利見臺)는 해능(海陵)에 이설(異說)이 있어 확실한 위치(位置)를 고증할 수 없으나 이곳 월영대는 신라시대 최고운이 축조했다는 기록과 그후 수많은 선비가 순

40) 前掲書

41) 前掲書

례하였고 또 비가 현재(現在)하고 있기에 현재(現在)로서는 우리 나라에 그 많은 인위적(人爲的)인 대중(臺中)에서 가장 오래된 태(台)로 인정(認定)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곳 월영대를 그 많은 선비가 순례(巡禮)하게 된 이유로서는 최고운(崔孤雲)이 해인사에 돌아갈 때 하루는 신발을 냇가에 벗어놓고 행방불명이 되어 가족과 사찰에서는 고운(孤雲)이 시신(屍身)을 찾지 못하였기에 가야산(伽耶山) 산신(山神)이 되었을 것이라고 제사(祭祀)를 지냈다고 하니 최고운(崔孤雲)만은 무덤이 없다.

묘(墓)가 마련되었다면 우리 나라의 관습(慣習)에 의해 묘(墓)를 참배하고 그 분의 이상(理想)과 학덕(學德)을 흠모하게 되는데 묘(墓)가 없으니 자연적(自然的)으로 그 분이 머물렀던 곳 중에서 확실한 장소, 특히 그 자신이 축조했다는 이곳 월영대(月影臺)를 찾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곳 월영대(月影臺)는 지금은 그 아름다운 경관이 변하였지만 일제(日帝)때까지만 해도 신마산(新馬山)의 해변(海邊)에는 아름다운 모래사장(沙場)으로 전국에서 여름철에는 해수욕장(海水浴場)으로 인기가 있었던 고장이다.

마산(馬山)은 자연경관(自然景觀)이 아름답고 합포만(合浦灣)이 깊숙히 들어와 그 잔잔한 바다는 내륙호(內陸湖)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5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都市)로 화(化)하여 자연경관을 높이 평가할 수 없으나 옛날의 많은 시구(詩句)에 합포만(合浦灣)을 노래한 구절등을 볼때 호수(湖水)에 비치는 달 그림자는 유명(有名)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산(馬山)의 지명(地名), 동명(洞名)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은 「월(月)」자(字)가 붙게 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태천현(態川縣) 읍지(邑誌) 산천조(山川條)에 보면

「장복산(長福山)……우서입해강선대(又西入海降仙臺) 이산형□출기작대(而山形□茁起作臺) 여창원월영대(與昌原月影臺) 격포상망(隔浦相望) 속칭고운선생승단릉월(俗稱孤雲先生乘丹弄月) 오유어차고명일강선대(遨遊於此故名日降仙臺)……」<sup>42)</sup>

이와 같이 합포만(合浦灣)을 사이에 두고 현진해(現鎭海)의 강선대(降仙臺)와 월영대(月影臺)는 마주 보고 있는데 최고운(崔孤雲)이 잔잔한 호수(湖水)에서 달빛을 보면서 뱃놀이를 하였기에 후세인들은 그속 바위를 강선대(降仙臺)라 하였던 것이다.

최고운(崔孤雲)의 소유처(逍遊處)는 경주(慶州) 남산(南山)에서부터 주로 사찰지(寺刹地)를 중심(中心)으로 심산(深山)을 돌다가 해변(海邊)인 마산(馬山) 월영대(月影臺) 옆에 집을 짓고 웅거한 것 같다. 그리고 신라사회(新羅社會)가 극도의 혼미속에 있을 때 신라(新羅)의 멸망을 여언(予言)하고 가족(家族)을 데리고 합천(陝川) 가야산(伽耶山) 하(下) 해인사(海印寺)로 망명한 것이다.

우리 나라 문화유적중(文化遺蹟中)에서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이룩된 것이 현존하는 것은 많지만 천년이 넘도록 계속 그곳을 이용하고 수많은 우리 나라 대표 급의 문장가(文章家)들이 순례(巡禮)한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문화재(文化財)란 규모(規模)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사(歷史)를 연구(研究)하는데 귀중(貴重)한 자료가 되고 시대(時代)가 오래이고 그와 같은 유형(類型)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연구대상(研究對象)이 될 때 우리는 문화재적 가치(文化財的 價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여 자연적인 태(台)와 인위적인 태(台)를 세운다. 또 마을마다 거수목(巨樹木)이 있는 곳을 정자(亭子)라

42) 東國輿地勝覽 態川縣 邑誌 山川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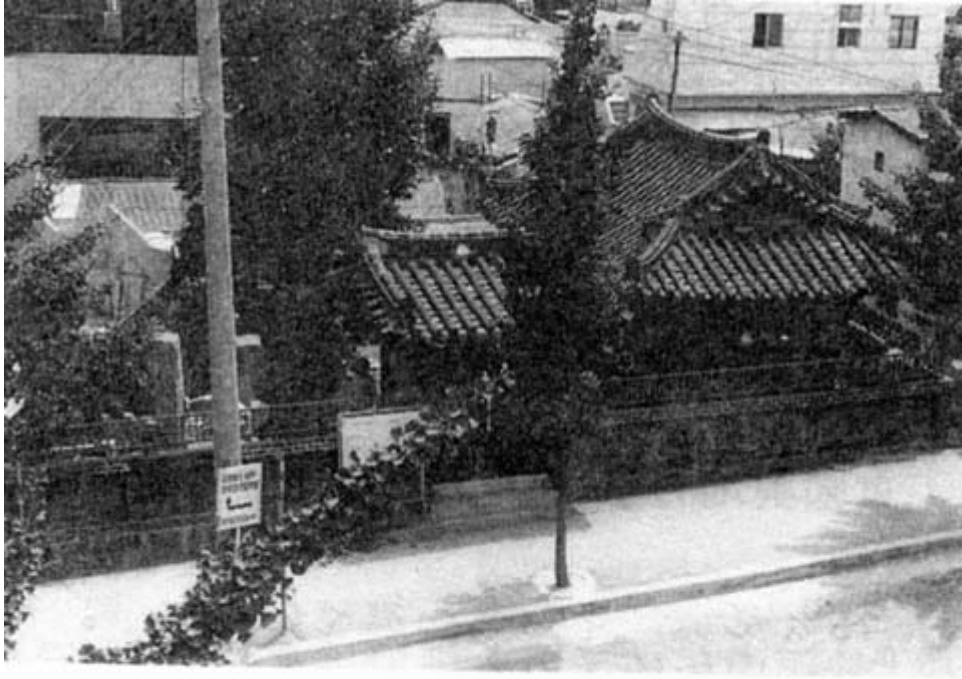
하며 마을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거나 마을일들을 의논(議論)하는 장소(場所)로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대(臺)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臺)와 우리민족의 삶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많은 대중(台中)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축조되어 현존(現存)하는 것은 이곳 월영대(月影台)만이 유일한 것이라 할 때 이는 국가(國家)차원에서 보존(保存)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문화재(文化財)로 여겨진다.



## 사진 1 1920년대 촬영

사진 1 1920년대 촬영





## 사진 2 現在の月影臺

사진 2 現在の月影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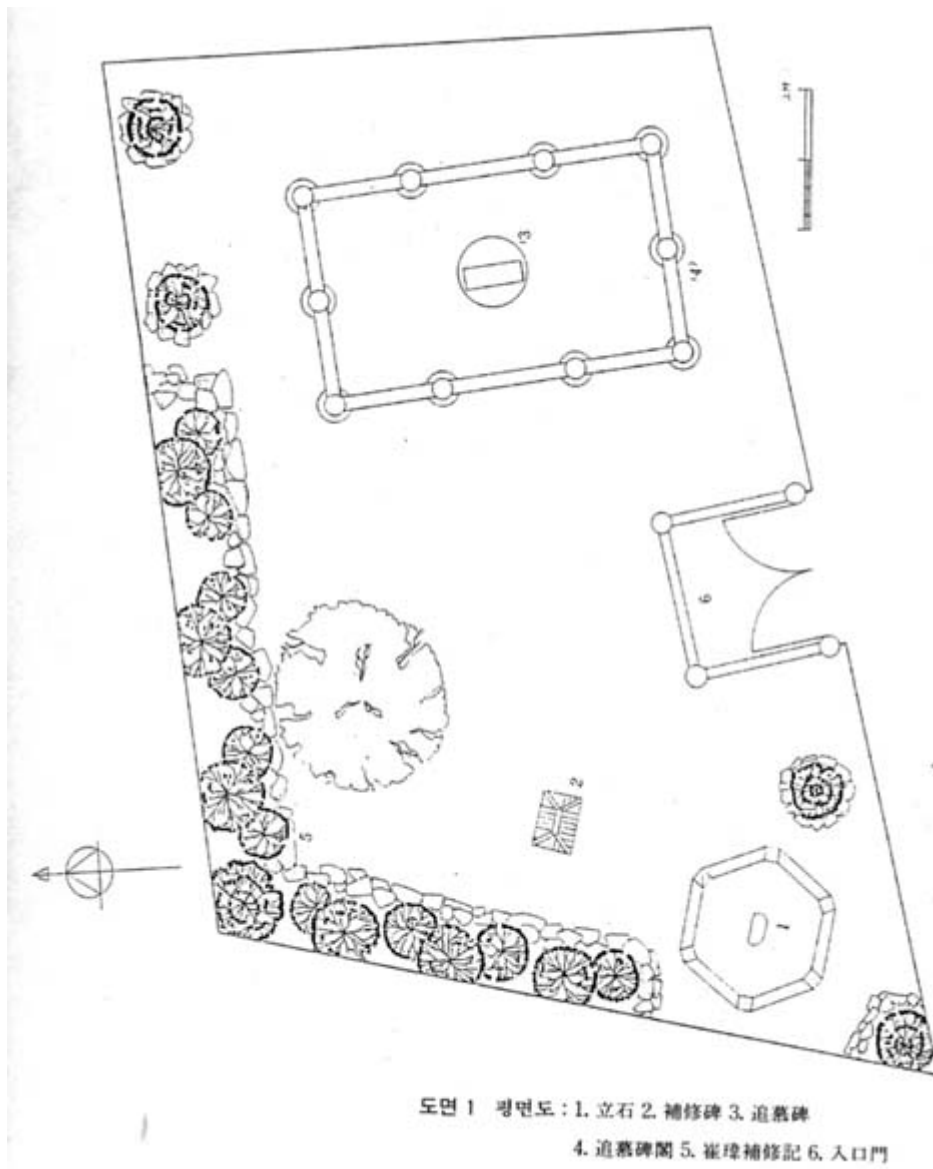


사진 3 月影臺와 靑龍臺의 「臺」字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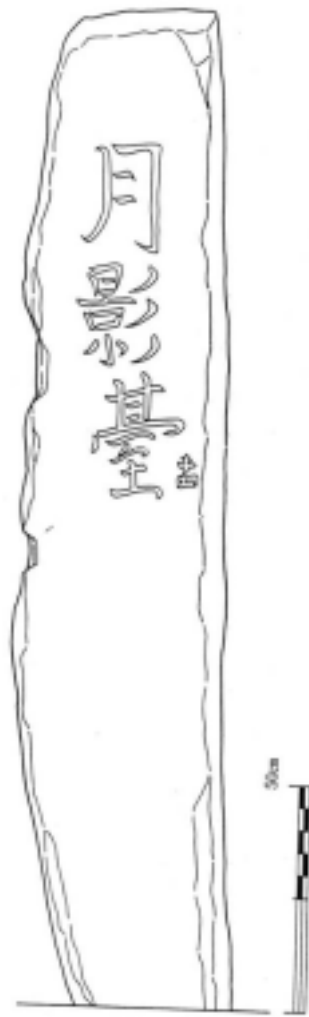


사진 4 側面 細字 剝落

사진 4 側面 細字 剝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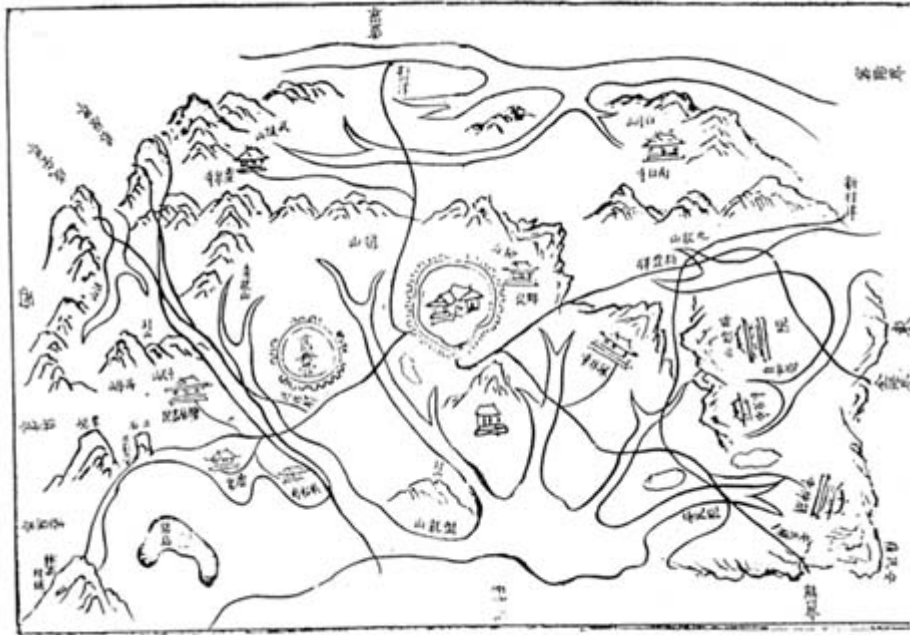


도면 1 평면도: 1. 立石. 2. 補修碑 3. 追慕碑 4. 追慕碑閣 5. 崔璋補修記 6. 入口門



도면 2 月影臺 立石碑

도면 2 月影臺 立石碑



昌原都護府圖：慶尙道邑誌第六冊 昌原

昌原都護府圖：慶尙道邑誌第六冊 昌原